한국의 불상(Sacred Dedication: A Korean Buddhist Masterpiece)

기간 및 장소: 2019 년 9 월 21 일(토)-2020 년 3 월 22 일(일), 아서 M. 새클러 미술관

Media only:

Megan Krefting 202.633.0271; kreftingm@si.edu

Sai Muddasani 202.633.0408; MuddasaniS@si.edu

Media website:

freersackler.si.edu/press

@FreerSackler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Freer and Sackler Galleries)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엄선한 목조관음보살상(木造觀音 菩薩像) 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를 개최한다. 고려시대(918-1392) 후반에 제작된 이 관음보살 상은 한국에서 가장 널리 신앙되는 보살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유희좌(遊戱坐) 목조보살상 가운데 가장시기가 올라가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예배의 대상으로 봉안하기 위해 불상의 내부에 경전과 상징적인 물목을 납입함으로써 상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불복장(佛腹藏) 전통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최근의연구 성과를 통해 이 보살상과 관련된 역사와 복장물(腹藏物), 그리고 수백 년 전 한국에서 이루어진 복장의례에 대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소개한다.

이미지는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시와 행사 관련 고해상도 이미지 사용을 위해서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사무실 전화 202.633.0271 또는 이메일 pressasia@si.edu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조관음보살좌상 고려 1220-1285 년경 나무, 동, 철 국립중앙박물관 덕수 953-1, 2



보관 고려 1220-1285 년경 동, 철, 나무 국립중앙박물관 덕수 953-2

목조보살상이 금속 재질의 보관과 함께 전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Office of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편이다.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를 걸친 모습으로 표현되는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속을 벗어나지 않은 보살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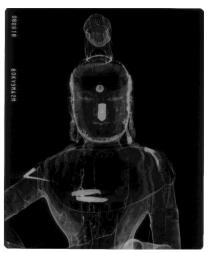
목조관음보살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물

고려와 조선 1220-1500 년경 국립중앙박물관

이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진은 목조관음보 살상의 내부에서 후령통(候鈴筒), 경전, 그리고 오방(五方)을 상징하 는 다양한 물목(物目)을 발견하였다.



족자를 패널로 표구; 비단에 채색 찰스 랭 프리어(Charles Lang Freer) 기증 프리어 미술관(Freer Gallery of Art) 소장 F1904.13



목조관음보살좌상 상반신 X-ray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이 x-ray 사진에는 보살상의 머리 안에 봉안되었던 원통형 금속체 와 그 위로 수정을 감입한 백호(白毫)가 보인다. 또한 x-ray 사진을 통해 이 보살상이 여러 개의 전나무 부재를 어떻게 접합하여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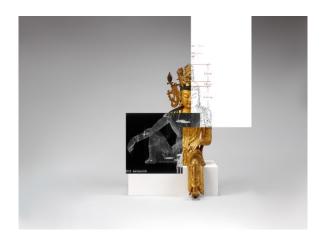
목조관음보살상의 3D 모델

국립중앙박물관

3D 스캔은 복장물이 납입되었던 13세기 불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 모델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 반으로 스미스소니언의 3D 플랫폼에서 구현한 것이다.

https://play.autodesk.com/pub/si-si-default-v5?cid=582585

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가슴과 등에는 'ㄷ'자형 거멀못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부재를 결합하였고 오른쪽 어깨는 못으로 고정하였다.



사진과 계측 도면, 그리고 x-ray 사진을 이용한 복합 이미지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 리드 호프만(Reid Hoffman)

X-ray 사진과 계측 도면, 고해상도 사진으로 이루어진 이 복합 이미 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목조관음보살상을 연구하는데 이용한 다양한 자료를 보여준다.